



“건축이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 속에 혼을 불어 넣어주는 것!”

_정상채 건축사와의 인터뷰

시론 _ 02

건축사공제조합 법인 설립을 앞두고
 _김영수 이사장 / 건축사

기획 _ 03

건축문화사랑 신문 선정 2015년 건축계 NEWS & ISSUE

설계경기 & 작품소개 _ 04 ~ 05

(구)나주점사공장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설계공모
 제16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금상, 은상

사람 & issue _ 06

“건축이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 속에 혼을 불어 넣어주는 것!”
 _정상채 건축사

대학뉴스 _ 07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2015년도 2학기 초청강연회 개최
 동강대학교 건축과, '건축디자인전' 개최하여 문화전당 인근 건축물 등 제한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리크루팅 Recruiting'을 위한 기업설명회 가져

NEWS _ 08 ~ 09

광주건축사회, 연말연시 맞아 이웃들에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 진행
 광주건축사회, 한국씨아이(주)와 회원사 대상 BIM실무교육 진행
 전북건축사회, 일본과 중국 건축 관련 단체와 국제교류행사 추진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도시재생 국제심포지엄 개최
 광주 · 전남 · 전북건축사회 12월 주요 일정 안내



건축사공제조합 법인 설립을 앞두고



김영수 이사장 / 건축사
건축사공제조합
(주)민영 종합건축사사무소

공제조합 법인이 설립되더라도 협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서로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여 건축업계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10년, 20년 후가 아닌 100년 후에도 조합원 그리고 협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커 나아가기 위해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건축사공제조합 법인 설립 근거 마련”

1995년 「건축사법」개정으로 공제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08년 10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2011년 1월 24일에서야 사업을 개시하게 되었다. 건축사의 업무를 담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공제사업은 사업승인 후에도 3년이 더 지난 후에야 시작되었으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지난 8월 11일 건축사공제조합 법인설립 근거를 담고 있는 「건축사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되어 2016년 2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협회 내에서 사업을 시행한 지 4년 7개월만이며, 길게는 20여년 만에 법인으로서 금융·보증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건축사의 업무대가가 현실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손해배상공제 증권 발급이 의무화되고, 공제사업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초기에는 반발도 적지 않았다. 경기불황의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손해배상공제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조합에 가입하고, 수수료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에 대해 누군들 불만이 없을 수 있겠는가? 건축사의 손해배상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건축사의 신뢰를 회복하여 궁극적으로 건축사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였던 큰 뜻보다는 이러한 부담들로 인해 공제조합이 곁게 보일 리가 없었을 것이다.

“외적성장 및 출자지분 상승”

하지만 먼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 건축사 모두가 바라왔던 사업이었던 만큼 관심과 격려를 보내준 많은 조합원의 덕분에 2011년 조합원 2,532개사, 출자금 28억여원에 불과 하였던 실적이 2015년 10월말 조합원 6,466개사, 출자금 106억여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더욱이 2015년도에는 1좌당 100,000원이었던 출자지분이 110,850원으로 상승되었다. 비록 법인이 아닌 상태라 배당금을 지급할 수는 없었지만, 공제사업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은 그간의 노고에 대해 다소나마 보람을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한다. 공제조합은 이제 걸음마 단계이며 앞으로도 힘든 도전을 앞두고 있다. 서두에 밝혔듯이 2016년 2월 개정 「건축사법」이 시행되면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의 사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한건축사협회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의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성장해 왔지만 이제는 자력으로 일어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얼마나 힘든 여정이 될지, 경쟁관계에 있는 여러 사업자 단체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미증유의 상황에서 피 땀 흘려 투자한 조합원의 출자금을 지켜내고 키워내서 그 동안 믿고 따라 주셨던 믿음에 대한 보답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건축사협회와 상생하는 건축사공제조합”

공제조합의 법인설립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 중에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다. “협회 밖으로 나가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느냐? 협회와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아니냐?”는 등 우려와 걱정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한낱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는 앞서가고 있는 다른 공제조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공제조합과 협회가 어려운 현실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모색하여 상생하는 관계를 맺고 윈윈하고 있지 않은가? 이는 공제조합의 조합원과 협회의 회원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공제조합은 건축사대회, 건축산업대전 등 행사는 물론 협회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힘닿는 데까지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공제조합 법인이 설립되더라도 협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서로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여 건축업계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만, 소수의 불만 섞인 이야기들은 공제조합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로 받아들일 것이다.

최근에 제주건축사회 소속회원 모두가 공제조합에 일괄 가입하였다. 한마음으로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뜻을 모아준 회원여러분과 이런 결과가 있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강영준 제주건축사회 회장이하 임원 여러분께도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공제조합이 회원여러분께 신뢰를 잃지 않고 있음을 생각할 때 감회가 새롭다.

앞으로도 공제조합을 열심히 이끌어 이러한 뜻에 보답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세월이 지나 공제조합에 가입한 것이 다행이라는 감사 인사를 받을 날이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건축사를 위한 건축사공제조합”

공제조합의 사전적인 의미는 ‘조합원 상호간의 부조와 복지를 목적으로 하여 그 구성원이 일정의 부금을 사전에 납입하여 부금의 적립금으로 재해·실업, 그 밖의 불행과 사고를 당한 구성원에게 일정한 액을 급부해서 구제하려고 하는 비영리적인 상호부조 조직을 말한다.’이다.

공제조합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로 인한 재산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공제업무와 「국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증서 발급기관으로서의 각종 이행 및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뿐만 아니라, 장차 조합원의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융자업무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건축사업 관련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조합원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조합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투자 등의 수익사업 등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경제적인 이익 창출을 위해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공제조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내적으로는 조합원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에게 전문가로서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공제조합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은 미숙하고 다음여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건축사 모두의 염원으로 시작되었고, 이러한 염원에 힘입어 사업개시 후 5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발전이 더 기대되기 때문에 협회와 더불어 건축업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날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보내야 할 것이다.

“건축사와 함께! 새로운 동행!”

공제조합은 앞으로 건축사를 위한 전문 보증·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미래성장을 위한 신 성장동력확보사업의 다각화), 고 객감동을 통한 대외 신인도 제고, 조직역량을 키우기 위해 효율과 성과중심의 경영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2016년에는 법인설립의 중요한 과제를 문제없이 해결해야 한다. 공제조합은 법인설립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으로 하여금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게 하며, 조합의 독립성 및 책임경영 확보, 회계 처리 등 제반 문제점 등을 해소하여 조합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운영에 따른 제반 이익에 대해 배당금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10년, 20년 후가 아닌 100년 후에도 조합원 그리고 협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커 나아가기 위해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공제조합은 건축사가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이다.

Architectural Design Group

(주)건축사사무소AD그룹
Since 2000

AD GROUP이 지향하는 목표는 人本입니다
AD GROUP의 DESIGN 철학도 人本입니다

- (주)건축사사무소AD그룹
 - 건축설계, 감리
 - 도시계획설계
- (주)에이앤디
 - 인테리어설계
 - 인테리어 시공
- (주)베트남하노이 건축사사무소AD그룹

○ AD그룹 대표건축사

 양동현 건축사 HP: 010-2046-3499	 심상봉 건축사 HP: 011-603-9889
 신정철 건축사 HP: 010-4623-2200	 양동윤 건축사 HP: 010-3620-5583

광주 서구 풍암중앙로 91길 4-41 2층
T 062.527.5000 / F 062.523.3700

건축문화사랑 신문 선정 2015년 건축계 NEWS & ISSUE

대한건축사협회장, 전회원이 참여하는 직선제 선거로 선출



▲ 대한건축사협회 제31대 조총기 회장(우측)

각 시·도건축사회 대의원들이 선출했던 간선제에서 대한건축사협회장 선거가 전회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변경되었고, 임기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되었다. 변경된 제도로 처음 실시한 올해 제31대 대한건축사협회장 선거에서 서울지역의 조총기 건축사(건축사사무소 간향당선됐다.

모두 5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올해 1월 20일과 21일 온라인으로 투표가 실시되었으며, 총 선거인수 8,247명 중 6,634명이 참여해 80.44%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중 1,729표(26.06%)를 받은 조총기 건축사가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었으며, 김영수 건축사(주)민영 종합건축사사무소) 26%, 강석후 건축사(수림 건축사사무소) 25.32%, 정태복 건축사(주)부산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13.81%, 이상섭 건축사(주)유비스 종합건축사사무소) 8.8%의 순으로 회원들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조총기 회장은 공약으로 '건축사업무대가 단계별 대가기준 입법화'를 비롯하여 '설계대가예치제, 감리대가예치제', '공공감리, 사후설계관리 업무 개선 법제화', '건축저작권보호센터 설립' 등을 내세웠다.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3년 임기 신임 회장 취임



▲ 정명철 제15대 광주건축사회장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 박용목 제28대 전남건축사회장 다산 건축사사무소



▲ 전병갑 제26대 전북건축사회장 종합 건축사사무소 제3건축

호남지역의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가 각각 올해 초 선거를 통해 신임회장을 선출 하고 취임식을 가졌다. 특히, 대한건축사협회 정관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회칙 변경에 따라 신임회장부터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다. 이로써 추진 사업·정책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갖추게 됐다.

광주건축사회 회장으로는 정명철 건축사(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가 3월 13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선출됐고 4월 1일 동 장소에서 취임했으며, 전남건축사회 회장으로는 박용목 건축사(다산 건축사사무소)가 3월 16일 순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선출 되어 취임했으며, 전북건축사회 회장에는 전병갑 건축사(종합건축사사무소 제3건축)가 작년 12월 22일 선출되어 올해 3월 19일 전주 오펜리스컨벤션홀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도로 사선제한 규제 53년 만에 폐지

지난 4월 30일 '도로 사선제한' 규제 폐지가 담긴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1962년 건축법 제정 이후 53년 만에 도로 사선제한 규제가 폐지됐다.

도로 사선제한은 도로변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 건축물의 반대쪽 도로 끝 지점과 도로 폭의 1.5배 높이가 되는 지점을 잇는 사선을 긋고, 그 사선의 안쪽에만 건축물을 짓도록 한 규제로 그동안 계단형이나 대각선 등 기형적인 건축 형태의 배후로 지목되어 왔다. 일례로 폭이 6m인 도로 옆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도로에 면한 부분에서는 9m(6x1.5), 2m 후퇴한 부분에서는 12m((6+2)x1.5), 6m 후퇴한 부분에서는 18m((6+6)x1.5)등으로 위치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됐다.

도입 초기에는 도시 내 개방감과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용적률에도 영향을 미쳐 사업성을 저하시키고, 층수가 올라갈수록 바닥 면적이 줄어드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어냈다. 또한 법을 피하기 위해 준공 후 빈 공간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등의 불법 행위도 적지 않았다.

법 개정으로 인해 연간 약 1조원의 건축투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는 규제 폐지로 서울시에서만 총 34조원 규모의 투자창출 효과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그동안 용적률 제한을 받았던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단지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후속 대책으로 도시 개방감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가로구역별 높이를 정하거나, 도로에서 일정 거리를 띄우도록 하는 건축한계선만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결합건축, 건축협정 등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

노후·불량 건축물의 재건축을 위해 대지별로 적용된 용적률을 대지간 조정할 수 있는 결합건축과 각각의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간 협정을 체결해 2개 이상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건물을 짓는 건축협정제도가 권장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건축물 노후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인구 정체,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감 약화로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의 부진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합건축제도는 각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의 기준을 건축주간 자율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용적률이 400%인 연접한 A, B 대지에서 동시에 각각 재건축을 할 경우 용적률도 각각 400%로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건축주들이 자율협의를 통해 A의 용적률을 200%, B의 용적률을 600%로 조정·결합해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의 잠실지역에서 시물레이션을 한 결과 용적률을 20% 결합시 사업성은 약 9%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협정제도는 2개 이상의 대지에 대해 토지·건축물의 소유자간 협정을 체결해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한 개 대지는 도로에 접해 있지만 다른 대지는 접근로가 없는 맹지일 경우, 두 토지·건축주가 건축협정을 맺어 건물을 지으면 용적률·건폐율·주차장·진입도로 등 건축기준을 단일 대지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어 공사비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그밖에도 전국에서 공사가 중단된 방치 건축물(약 949동)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지방세 감면, 권리관계 조정 등을 통해 사업재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리뉴얼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대문사무서처럼 공공청사에 상업시설을 추가하는 복합개발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2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건축투자 패러다임을 신축에서 노후건축물 재건축·리모델링으로 전환해 도시기능·경관·안전 개선과 건축 수요 확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건축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건축사, 무고 혐의로 구속돼

지난 6월 30일 광주지검 형사부는 허위 고발을 일삼고 고발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받아 낸 혐의(무고·공갈·변호사법 위반 등)로 광주지역 건축사 한 명을 구속기소했다.

광주지검은 구속된 건축사가 주로 다가구 주택의 불법적인 증축·용도변경 등을 2012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광주지검에 1,543건을 고발했고, 서울과 전주 등 전국 10개 검찰청에 모두 1,953건을 고발했으며, 고발당한 사람이 4,000명에 넘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고·공갈·금품수수 등의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혐의다.

구속된 건축사가 고발한 사건을 전수조사한 검찰은 '건전한 고발정신으로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제도 취지를 벗어난 고발권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고발로 인해 수사 중인 사건은 각하 처분하고, 다가구 주택등 불법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광주건축사회 및 지자체 등과 협의를 개선할 유도로 하기로 했다.

한편, 해당 건축사는 구속되기 전 여러 언론에 출연하여 사회에 만연된 불법적인 건축행위를 성토했던 바 있으나, 구속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됐다. 현재 재판은 진행 중이며, 그에 대한 평가도 분분하다.

4년제, 전문대 졸업자도 건축사보로 / 건축사 실무교육시간 5년 60시간 → 40시간으로 축소

앞으로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 전문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 그리고 고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도 건축사보가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19일 건축사보 자격기준 완화와 건축사 갱신등록 등에 따른 실무교육시간 조정(5년 60시간 → 40시간), 건축사공제조합 운영규정 마련, 건축사시험 과목별 합격자 면제회수 조정 사항 등을 담은 건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사보 자격기준 완화가 눈에 띄는데 건축물 감리현장의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으로, 현행은 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수자로서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 국가기술자격자(건설, 전기·전자, 기계, 정보통신 등),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가 건축사보가 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이 공표되면 자격기준이 확대된다.

건축사 갱신등록 등에 따른 실무교육시간도 5년간 60시간에서 40시간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건축사공제조합 운영에 필요한 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 보증 대상 및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리고 앞으로는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은, 그 시험 직후 시행되는 해당과목에 대한 면제 횟수가 연속 3회에서 연속 5회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및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 복합문화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문화복합시설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11월 25일 공식 개관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난 2004년 첫 삽을 뜬 이래 11년 동안 총 사업비 7000억 원이 들어간 초대형 프로젝트로 전시·공연·체험프로그램 등 여러 콘텐츠와 시설물을 갖추었다.

옛 전남도청 자리에 위치한 전당은 전체 부지면적 13만4815㎡(연면적 16만1237㎡)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로 예술극장,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민주평화교류원, 어린이문화원 등 5개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빛의 숲'이라는 건축 개념으로 지하에 신축한 전당은, 천장을 통해 채광과 환기가 이뤄지게 했고 옥상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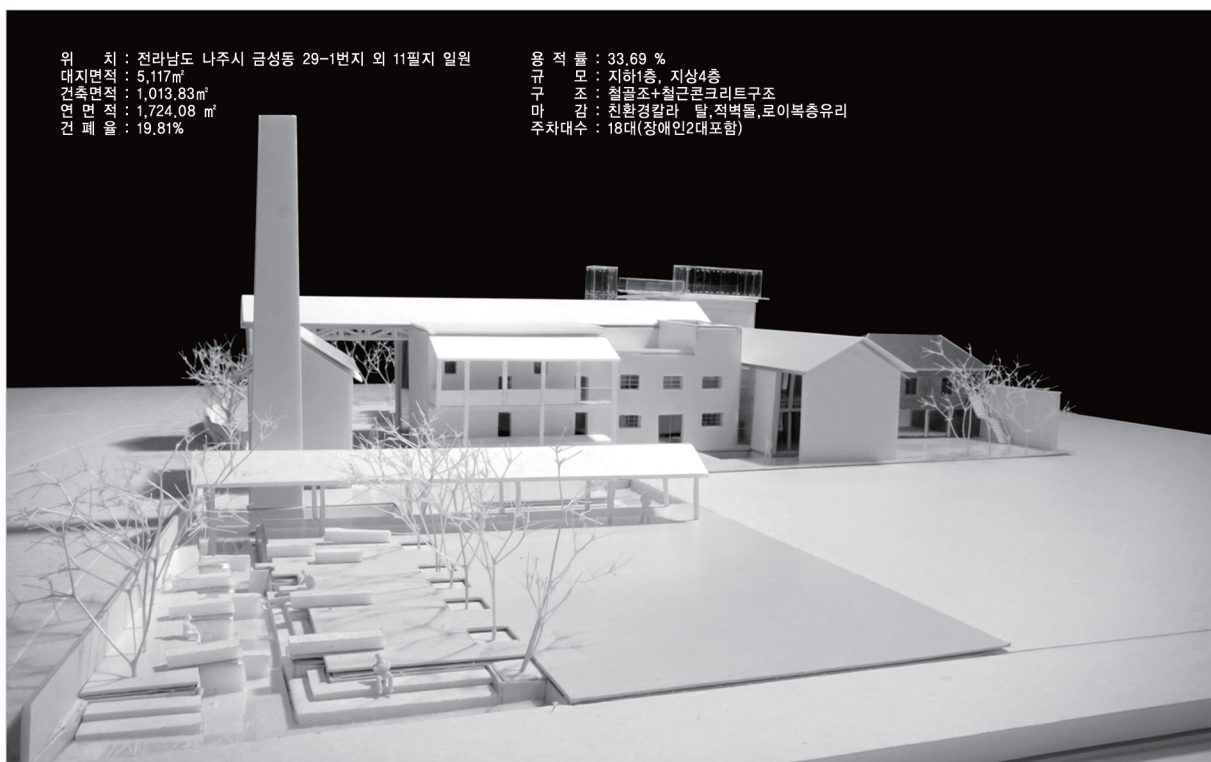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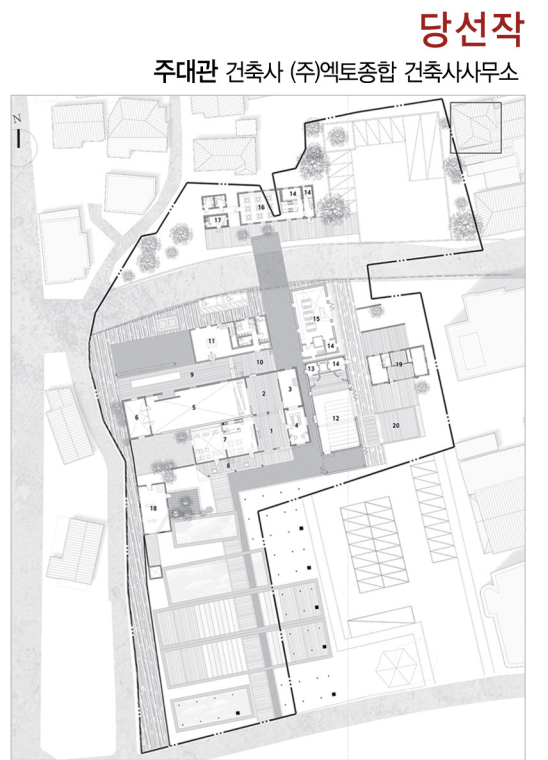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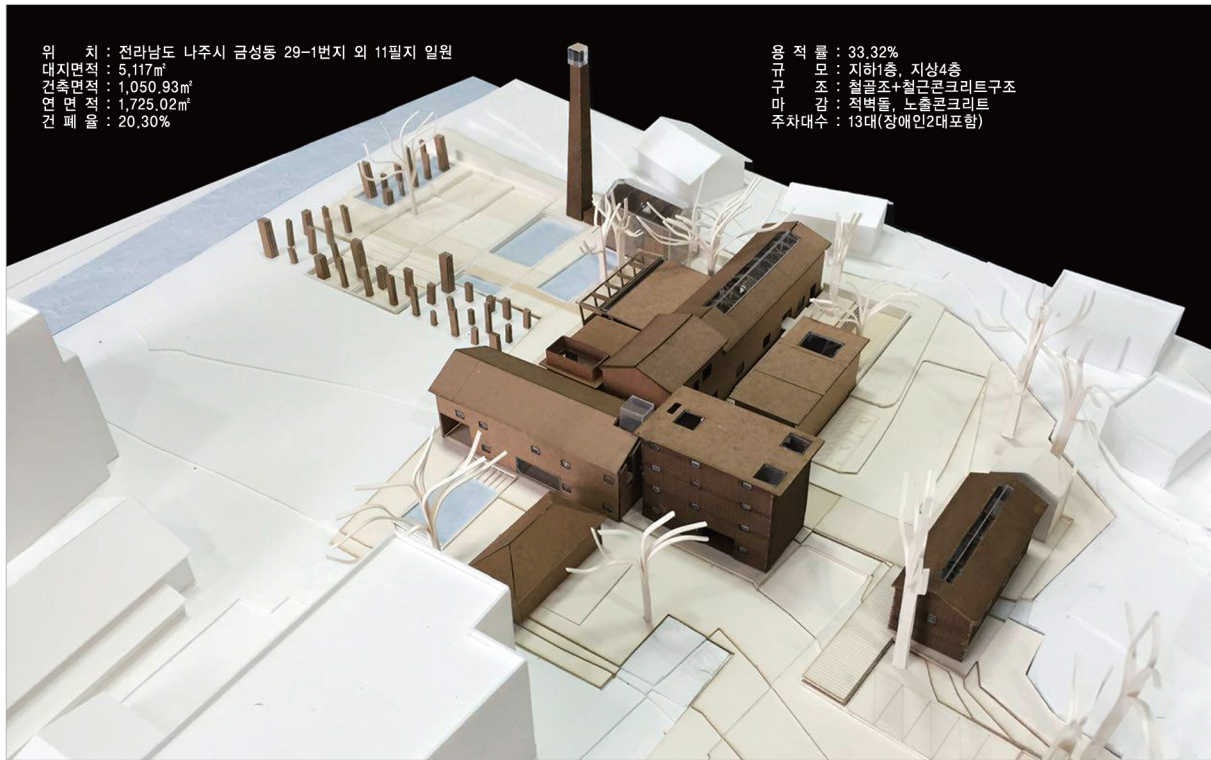
전당은 또한 16,430㎡의 국내 최대 어린이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는 창작공연과 새로운 놀이기구, 그리고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어린이박물관 등을 통해 어린이문화원의 모델을 국내외 유관기관에 보급 지원하며 아시아와 세계로의 유동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방대한 규모에 걸맞는 양질의 콘텐츠 공급 문제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차별성 그리고 일반 대중과 좀 더 친숙하게 어울릴 수 있는 사업적 영역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모색이 향후 숙제로 남아있다.

근대산업유산의 현장인 (구)나주잠사공장의 주요시설과 공간을 보존,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을 제안하여 나주시민들이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며, 나주 도심의 문화적 역량이 집약된 중심공간의 역할과 도시적 확장의 가능성을 담은 설계공모(안)을 선정함
 발 주 처 : 나주시 설계공모방식 : 일반공개공모
 심사위원 : 조성룡, 김용미, 최문규, 김성홍, 윤승현, 권문성, 임용민, 이민석, 신응주

당선작 : (주)엑토종합 건축사사무소 주대관 건축사
 우수작 : 인스 건축사사무소 김태윤 건축사
 + (주)무네코토신사쿠 건축설계사무소 무네모토 마사코
 가 작 : (주)광주공간 건축사사무소 조성호 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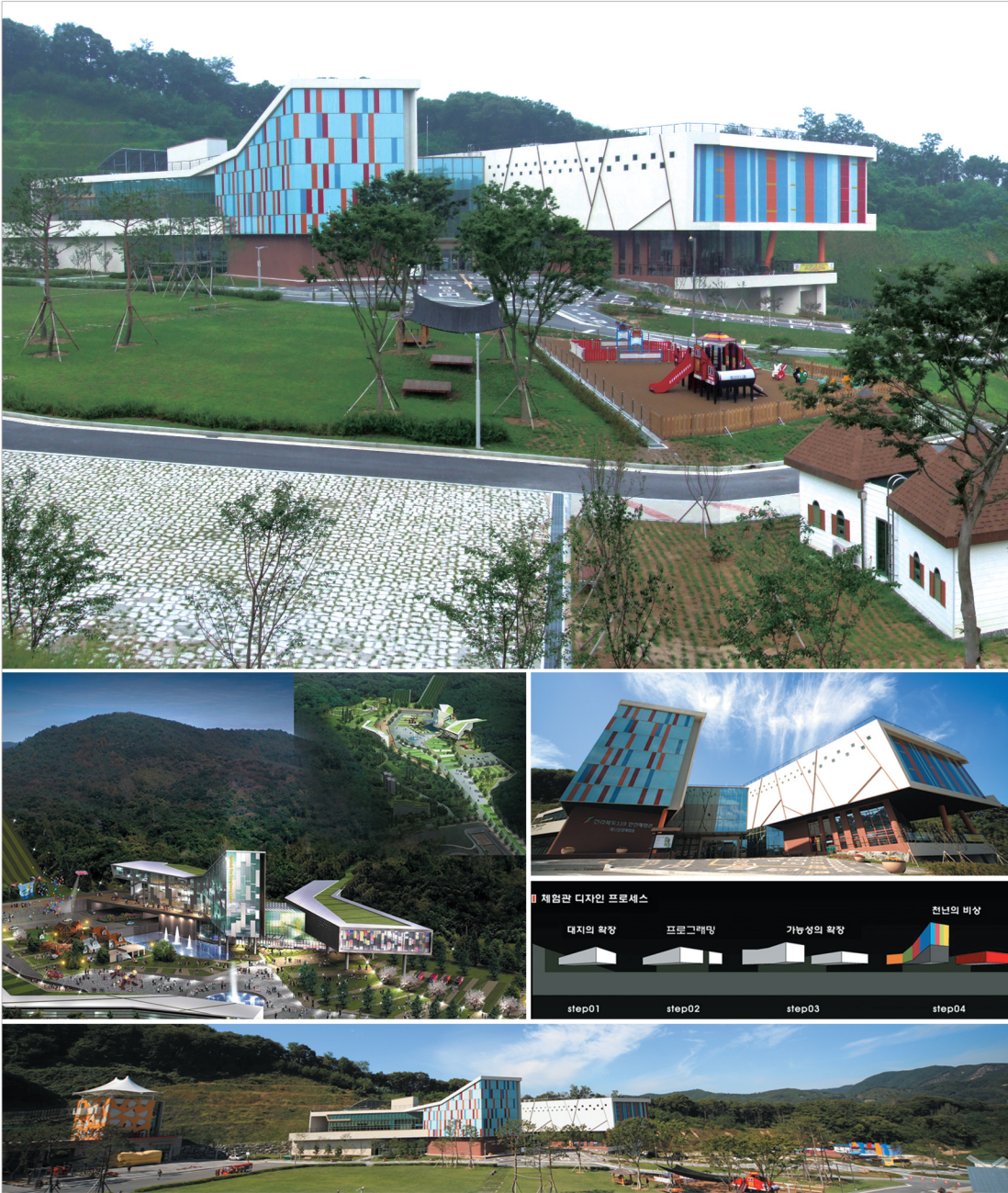
(구)나주잠사공장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설계공모



전라북도는 "도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제"의 일환으로 건축문화의 질적인 향상과 아름다운 건축물을 확산하고 나아가 건축문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건축인 발굴을 위하여 "제16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을 공모하여 공공부분 3작품과 일반부분 5작품을 선정하였다. 또한 학생부분과 건축사진분야에 대한 작품공모도 진행하였다. (대상은 2015년 11월 제 072호에 소개)

공공부분 수상작
 대상 : 바우 건축사사무소 박광성 건축사
 금상 : (주)길 건축사사무소 이길환 건축사
 은상 : 건축사사무소 예일 최형두 건축사

제16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공공부분 금상

전라북도 소방안전체험센터 _ 이길환 건축사 (주)길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 전라북도 임실군 이도리 473외 26필지
 대지면적 : 100,144.0㎡
 용 도 : 업무시설 (전시관)
 층 수 :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면적 : 4,690.21
 건 폐 율 : 4.68
 용 적 율 : 6.34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 장 : 실리콘플러스터/적삼목 치장, 징크, THK24칼라복층유리
 주차대수 : 134대(장애이용 5대, 대형 5대포함)

우리나라 서남권에 소방안전체험센터로 전라북도 안전체험센터만의 차별화를 위해 단지 전시시설로여주는 것에서 벗어나 실제 체험위주의 시설로변화하였고, 특히 어린이를 위한 체험시설은 어린이 체험마을로 단지화하여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시설로 구성되어 전국 어느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작품의 컨셉은 "NEST"로 새는 가장 안전한곳에 동지를튼다하여 계곡형 단지를 중앙의 메모리얼광장을 중심으로 능선을 따라 지형을 활용한 건물군을 연계시켜 하나의 튼튼한 동지와 같은 상징적 공간을 제시하였다.

전라북도의 상징인 오방색, 치솟은 전면매스는 전복의 높은 기상을 닮아있다. 호남과 충청을 아우르는 안전체험센터로서 주 전시동은 화재를 비롯한 지진,방사능, 자동차전복등 소방, 재난활동의 안전체 험시설과 4D체험등으로 전시 및 체험공간이 제공된다.



공공부분 은상

신평문화회관 _ 최형두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예일

대지위치 :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423외 9필지
 지역및지구 : 계획관리지역
 주요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지역자치센터)
 대지면적 : 4,426.00㎡
 도로현황 : 10M도로
 연 면 적 : 548.87㎡
 건축면적 : 548.87㎡
 용 적 율 : 12.40 %
 건 폐 율 : 12.40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층 수 : 지상 1층
 건물높이 : 9.69 M
 외부마감 : 점토벽돌, 노출콘크리트, 아연도 골강판
 주차계획 : 3대 설치

신평면 농촌마을의 복지·교육·문화 활성화와 마을의 화합을 증진시키기 위한 문화회관은, 이 자그마한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처럼 또 하나의 소중한 풍경으로 소용한다.

마을의 배경이 되는 주산의 흐름이 마을 앞 안산까지 시원하게 통하도록 야트막하게, 그리고 마을 앞을 흐르는 길에 대응하도록 길게 뉘어 배치한다.

마을 앞을 흐르는 길에서부터 [진입마당] - [복지·교육·자치사업 동] - [중정] - [체육시설 동]으로 공간을 흐르게하고, 그 흐름이 잠시 머물다 가는 중정엔 마을의 소소하고 평화로운 풍경과 문화를 풍요롭게 담아본다.

신평문화회관은 마을의 한 풍경으로 소용하게 되고, 들뜬 사계와 함께 웃으며 마을의 문화 활성화와 마을 화합을 이루어 갈 것이다.



“건축이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 속에 혼을 불어 넣어주는 것!”



광주 / 초석 건축사사무소 정상채 건축사



▲ 직무실에서 업무 중인 정상채 건축사



▲ 국민생활체육 광주광역시 피구연합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주관으로 실시된 캄보디아 봉사활동 참여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상채 건축사(초석 건축사사무소/이하 정 건축사)는 20여년 건축전문인으로서의 길을 걸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봉사활동과 지역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광주건축사회의 임원 및 감사활동 등으로 많은 선후배 건축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12월 7일 광주 북구 중흥동(무등로 255 2층)에 위치한 정 건축사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동안 건축인으로서의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자신만의 건축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풍채만큼이나 털털하고 넉넉한 정건축사는 “감히 이런 인터뷰를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송구스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찾아주셔서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웃으며 말문을 열었다.



▲ 정상채 건축사 대표작품 (어등산 클럽하우스)

건축사로서의 걸어오신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학교 때 역사 및 지리를 공부하면서 신라시대 때 불국사와 토함산 석굴암이 김대성 선생으로 인해 창건되어 우리나라의 훌륭한 건축 문화유산이 되었다는 이야기와 조선시대 창업공신인 삼봉 정도전 선생으로 인해 한양천도가 이루어지고 현재의 대한민국의 수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훌륭한 설계자가 되어 후대에 훌륭한 문화유산을 남겨주어야겠다는 꿈이 생겨나 건축공학 전공으로 대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학업을 마친 후 서울에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대학시절 순수한 사명감을 갖고 공부했던 건축과는 너무나 다른 방향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순수한 건축에 대해 더욱더 알고 싶다는 생각으로 설계사무소에 입문하여 매진한 끝에 건축사면허를 1998년도에 취득하고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릴 시절에 받았던 당시의 순수한 감흥과 사명감이 현재의 저를 만들어 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속에 건축사가 될 수 있었던 기회를 만들기도...

IMF 후폭풍으로 모두가 힘들었던 1990년대 후반, 저 또한 생활고를 극복하기 위해 건축설계와 시공현장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장업무 중에 발목뼈가 부서지는 부상을 입은 것입니다.

포크레인 바퀴에 제 신발 끈이 빨려 들어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그 거대한 힘 앞에서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3차례의 큰 수술을 받았고, 약 5개월 가까이 병원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말에 낙심했으나 이 위기가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바쁜 업무 때문에 소홀히 했던 건축사 시험준비를 그때서야 충실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심신의 고통을 이겨내며 말입니다.

그 도전 끝에 ‘건축사’ 자격면허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의 사건과 고통스러운 몸부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건축사님께서 확립하신 건축철학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껏 식지 않는 열정으로 건축설계에 심혈을 기울여 왔고, 건축에 인문학적 요소를 불어 넣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건축물이 되도록 작품활동에 매진했다고 자부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속에 혼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는 ‘건축’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건축사 활동하시면서 자랑스러울 때와 부끄러울 때가 있었다면?

건축사라면 누구나 같은 생각일 것이라 봅니다만, 건축설계 과정을 거쳐 건축주의 마음과 설계자인 나의 마음이 일치된 작품이 탄생되었을 때 자랑스럽고, 건축주와 수십 번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설계를 하려 했으나 처음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설계가 되었을 때 부끄럽고 아쉽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건축사가 있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이 지역에서 활동하셨던故신양우 건축사(삼양 건축사사무소)님을 존경합니다. 저를 건축설계사무소에 입문시켜 주시고 혹독한 훈련과 섬세한 교육을 통해 건축설계에 대한 자세, 방향, 인문학적 작품으로 건축과 인간이 하나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신분입니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故신양우 건축사님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 동안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있었던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면?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만, 따뜻하고 정이 가는 한 시골 터에 한 의원주택을 설계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음악을 너무나 좋아했던 건축주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음악실을 계획했고, 완공될 때까지도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그랬더니 건축주께서 크게 기뻐하며 준공 후 사례비를 용역비보다 많이 주셨습니다.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건축사로서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기타사회활동에 대해

내부적으로 광주건축사회에서 이사와 감사로서의 직무 수행과 더불어 건축사로서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여러 대외 분야에서 활동을 해나갔습니다. 생활체육회 피구연합회장도 역임했었고, 남도포럼 환경분과위원장과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2기 부회장, 법무부 법사랑 위원, 고등학교 동창회장, 로타리클럽활동,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했었습니다. 느낀 점이 있다면 많은 후배들 또한 건축사로서의 업무 범위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사는 사회지도층에 해당하므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후배 건축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고 나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여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후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건축설계라는 우리 업역에 공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문학 및 철학을 접목시킨 작품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 계획 및 포부

지금까지 설계했던 작품들을 책자로 엮어서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고 기록물로 남기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건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밀거름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취재 : 서재형 편집인 archiseo@nate.com
정리 : 광속국 전담기자 gjkira@empas.com

정상채 건축사 작품



고흥 전망대



고흥 마복산 목재체험관



나주 생태체험관



한국폴리텍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2015년도 2학기 초청강연회 개최

- 지난 10월 27일과 11월 10일 두 차례 강연...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회장도 강연나서



광주대학교 건축학부는 지난 10월 27일과 11월 10일 교내 백인관 2층 컨퍼런스룸에서 2015년도 2학기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건축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강연에 국내 유명 건축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서 강연 전부터 화제가 되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0월 27일 (주)이가 종합건축사무소 송희열 전무의 '해양건축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두 번째 이야기는 11월 10일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회장의 '생각의 전환, 건축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특히 정명철 회장은 강연에서 "본인 또한 본교의 동문으로서 우리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올바른 건축 환경을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회장으로서 그리고 건축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강대학교 건축과, '건축디자인전' 개최하여 문화전당 인근 건축물 등 제한

- '아시아문화전당 문화 허브 조성' 주제로 지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



동강대학교 건축과는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식 개관에 맞춰 '세계로 뻗어가는 문화 중심도시 광주'의 모습을 제한했다.

지난 12월 2일 이공관 2층 특별전시실에서 제39회 건축디자인전을 개최하여, 4일까지 '아시아문화전당 문화 허브 조성'을 주제로 아시아문화중심도에 명성에 걸맞은 '청소년 시설 센터'와 '출판 박물관', '문화호텔', '문화전당도서관', '향토 광주은행리 모델링', '박물관', '광주복합문화센터', '문화카페', '쇼핑센터', '노인복지센터', '미술관', '서비스센터' 등의 13개 건축 작품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에서 이용범 학과장은 "광주가 아시아문화예술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당 주변의 장소성과 도시공간에 맞는 공공건축물을 계획했다"며 "학생들의 작품이 지역에서 '광주는 아시아의 문화 중심지'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강대학교 건축과는 지난해부터 세계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건축디자인전' 홍보 영상을 올려 학내 뿐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주목을 받기도 했다.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리크루팅Recruiting'을 위한 기업설명회 가져

- 지난 12월 3일 교내에서 진행, 설계사무소와 시공회사 근무여건과 시스템 등 설명



순천대학교 건축학부는 지난 12월 3일 교내에서 리크루팅Recruiting을 위한 기업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기업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는 광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모아주택산업과 광양의 건축사사무소 인중헌이 참여했다.

(주)모아주택산업은 럭셔리 아파트를 지향하는 아파트 건설업종의 회사로서 경영지원팀장과 법무팀장이 홍보영상과 함께 설명회를 시작했다.

(주)모아주택산업의 사내 분위기나 각종 근무여건, 복지, 급여 등의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세종시, 충북혁신도시, 경기도 김포 등 현재 여러 현장의 초고층형 아파트를 시공하고 있고 채용기준과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 등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 갔다.

이어 건축사사무소 인중헌에서는 본교를 졸업한 선배가 직접 방문하여 설명을 진행했다. 먼저 선배가 졸업 후 경험했던 이야기로 시작하여 인중헌의 대표작품과 설계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들로 마무리 지었다. 이와 함께 사내 분위기, 근무여건, 복지, 급여에 대해 설명했다.

두 회사의 기업설명회가 끝나고 5학년 예비졸업생들은 막연하게 설계와 시공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고민들과 설계사무소와 시공회사의 근무여건이나 회사의 시스템 등을 미리 설명회로나마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취업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모습이었다.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김대윤 학생기자 eodbs411@naver.com

사랑에서_열셋

우리 아이들의 고향은 아파트?

'요즘 아이들에게 아파트가 고향입니다.' 무심코 듣고 있던 라디오에서 어느 건설회사의 광고가 흘러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짜악 돋았다. 인간의 삶과 문화에 미치는 건축의 영향이 얼마나 막대한지를 새삼 절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동시에, 건축전문가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는 순간이기도 했다.

사실, 아파트의 기원은 빈민이나 노동자를 관리하기 위한 집합주거였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한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아파트가 각광받지 못한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완전히 판판이다. 아파트건설의 열기가 전국토를 들끓게 하고 있을 정도다. 삶의 질이나 문화보다는 일상의 작은 편익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나 또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만, 꼼꼼하게 살펴보면 문제가 적지 않은 주거형식이다. 무엇보다도 똑같은 구조와 형태의 집에서 각기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살아만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마치 닭장처럼 위아래 혹은 좌우로 층층이 쌓여서 말이다. 그러니 거주자는 자신만의 취향을 포기하고, 이미 정해진 집에 꿰맞춰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 가구어아할 텃밭도, 놀 수 있는 마당도, 음미할만한 정원도 없다. 게다가 뛰어서도 안 되고, 큰 소리가 나서도 안 되며, 심지어는 피아노도 마음 놓고 연주할 수가 없다. 결국 자기 먹고 TV보는 것 외에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저런 핑계로 밖으로 나오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도 결코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을 정리해 보니, 아파트는 하숙집이나 다름 게 별로 없다. 빈민이나 노동자들의 주거형식으로는 아파트가 안성맞춤인 셈이다. 그런 곳이 요즘 아이들의 고향이라니 너무너무 씁쓸하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재산의 증식과 생활의 편리함을 들어 아파트를 찬양하기도 한다. 물론 그러한 부분은 대체로 인정한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가족의 화목과 정서의 함양 또는 정신적 건강보다 더 중요한지를 되묻고 싶다. 어른들의 현재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혹시, 눈앞에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더 큰 것을 보지 못하는, 한마디로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닭과 알의 문제처럼 어느 것이 먼저랄 것도 없이, 삶의 질과 건축문화는 서로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건축문화는 그 시대와 그 지역에 대한, 삶의 질과 문화의 수준을 가능하는 척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은 돈벌이가 좋은 사업쯤으로, 건축사사무소는 허기를 받아주는 대서소쯤으로 폄하되고 있다. 또한 선인들의 지혜와 기억이 남아 있는 건축문화의 흔적을,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한 순간에 쓸어버리기도 한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사회의 수준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빈민이나 노동자들에게 적합한 생활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데도, 정작 어른들은 일상의 편리함과 재산의 증식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아파트문화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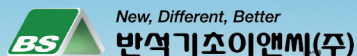
<편집인_서재형 건축사 (archiseo@nate.com)>

건축사 만평 _ 심상봉 건축사(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림



공사의 첫 단추, 기초공사 반석기초이앤씨에서 끼우세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곳이 없습니다
공사의 첫 단추인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건축물의 결과도 부실해집니다
공사의 첫 단추를 반석기초이앤씨에서 끼우는
시공사가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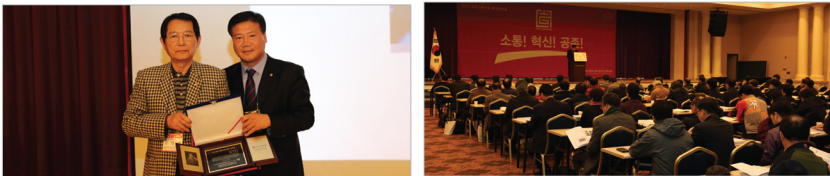
광주건축사회, 연말연시 맞아 이웃들에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 진행
- 지난 12월 5일과 7일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 후 광산구 지역 8개동 경로당에 전달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회장 정명철)는 지난 12월 5일 광주 남구 김치타운에서 연말연시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기 위한 김장김치담그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국회의원, 광주광역시의회 김민중 산업건설위원장 및 자원봉사자 등 50여명이 참석했고, 나눔행사를 위한 김장김치 280포기를 담았다. 정명철 회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이 이 사회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건축사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이웃들과 함께하는 봉사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담은 김장김치는 12월 7일 광산구 지역 8개동 경로당과 보육 시설 등에 전달 되었으며 이 자리 또한 정명철 회장을 비롯한 봉사 참가자들이 함께했다.

광주건축사회, 2015 광주건축사회원 발전워크숍 개최

- 지난 11월 26일과 27일 전북 변산 대명리조트에서... 미래 생존전략 수립을 위한 자리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11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전라북도 변산 대명리조트에서 미래 생존전략 수립을 위해 '2015년 광주건축사회원 발전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광주지역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강연이 진행되었으며 감사패 및 공로패, 자랑스러운 건축인패 수여식, 그리고 올 8월에 전화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결과가 보고됐다. 특히 특별 강연에서 국토부 건축정책과 조한권 정책담당관의 '건축정책의 방향'과 (주)엔하학교레소통아카데미 김정희 과장의 '자기혁신과 창조적 리더십' 강연에 많은 회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어진 식선 후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건축사사무소의 생존전략 수립을 위한 분임토의가 진행되었는데, 건축사사무소 그룹화 방안과 건축사 연금제도 및 수익사업 개선 방안, 공사감리운영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기한없이 표출되었다. 정명철 회장은 "이번 워크숍은 우리 광주건축사회의 소통과 혁신, 공존을 모색하고 건축사사무소 경쟁력 강화 전략을 수립하고자 마련하였으며, 회원들께서 토의를 통해 제시한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은 향후 광주건축사회를 비롯한 소속 기관의 정책 수립 시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2015년 자랑스러운 광주 건축인으로 선정된 송양석 건축사(한미 건축사사무소)에게 정명철 회장이 자랑스러운 건축인 패와 건축사 금뺨지를 수여하는 훈훈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광주건축사회, 한국씨아이엠(주)와 회원사 대상 BIM실무교육 진행

- 지난 11월 21일 개강식을 갖고 오는 12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교육 진행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11월 21일 한국씨아이엠(주)와 회원사를 대상으로 BIM실무교육을 실시하고 개강식을 가졌다. 사전 신청자 중 선별된 20여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4차례 강연을 실시하는 이번 강연은 BIM의 이해와 Revit 모델링, Revit data활용(도면화) 과목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한국씨아이엠(주)은 1990년 설립되었으며 건축, 토목, BIM 관련 솔루션 제공하고, BIM 활용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한편 조달청은 2016년부터 '맞춤형 서비스'로 집행하는 모든 공사에 '건설정보모델링(BIM)' 설계를 적용하여 발주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16년 맞춤형서비스 사업의 규모가 2조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공사규모에 따라서도 BIM 요구수준을 차별화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사비 300억 원 미만은 계획설계 또는 중간설계 수준의 최소화된 BIM 적용, 300억~500억 원 공사는 실시설계 수준의 BIM, 500억 원 이상의 공사는 실시설계 수준의 BIM에 더하여 사업특성에 따른 추가적인 건설 정보 입력을 요구할 계획이다.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11월 21일 한국씨아이엠(주)과 회원사를 대상으로 BIM실무교육을 실시하고 개강식을 가졌다. 사전 신청자 중 선별된 20여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4차례 강연을 실시하는 이번 강연은 BIM의 이해와 Revit 모델링, Revit data활용(도면화) 과목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한국씨아이엠(주)은 1990년 설립되었으며 건축, 토목, BIM 관련 솔루션 제공하고, BIM 활용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한편 조달청은 2016년부터 '맞춤형 서비스'로 집행하는 모든 공사에 '건설정보모델링(BIM)' 설계를 적용하여 발주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16년 맞춤형서비스 사업의 규모가 2조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공사규모에 따라서도 BIM 요구수준을 차별화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사비 300억 원 미만은 계획설계 또는 중간설계 수준의 최소화된 BIM 적용, 300억~500억 원 공사는 실시설계 수준의 BIM, 500억 원 이상의 공사는 실시설계 수준의 BIM에 더하여 사업특성에 따른 추가적인 건설 정보 입력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북건축사회, 일본과 중국 건축 관련 단체와 국제교류행사 추진해

- 지난 11월 4일 일본 건축가협회 구주지부가 방한, 17일은 중국 강소성 감찰설계협회에 방문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건축사회(회장 전병갑)는 지난 11월 4일과 17일 2015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국제 교류 사업을 실시했다. 먼저 11월 4일 일본 건축가협회 구주지부 녹아도지역회 Ishikawa yukio 회장을 비롯한 6인의 방한단이 3박 4일의 일정으로 전라북도를 방문한 가운데 전북건축문화회 참관 및 전북대학교 특강, 전북지역 건축문화 탐방을 진행하였고, 전북건축사회 사무국에서 지속적인 국제교류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11월 17일에는 전병갑 회장을 비롯한 14명의 임직원들이 중국 남경 강소성 감찰설계협회 협회를 방문하여 협회장과 임원진들에게 2015년도 한·중·일 국제건축작품전시회 결과를 전달하고, 최근 에너지절약에 대한 건축기준의 흐름과 전통적 건물, 보존지역에 관한 사항, 지속적인 교류사업 추진 및 2016년도 강소성 감찰설계협회 방한일정에 대해 협의했다. 전병갑 회장은 "앞으로도 이와 같이 일본과 중국 건축 관련 단체와 국제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북 지역 건축문화 발전과 나아가 대한민국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고 밝혔다.

제31대 전국 시·도건축사회장협의회, 제주에서 협의회 개최

- 제주건축사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참석 및 협회헌안에 대한 협의차



현 17개 시·도건축사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제31대 전국 시·도건축사회장협의회(회장 서윤진)는 지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2월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제주건축사회의 창립50주년 기념행사 및 제주건축 제4집 출판기념식이 제주에서 개최됨에 따라 연계하여 진행됐다. 특히 이번 협의회는 제주건축사회의 창립5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 함께 마련되어 그 의미가 뜻깊었으며, 본 회의에서는 건축공사감리제도와 관련한 건축법 개정 내용을 비롯하여 협회의 각종 헌안들이 논의되었다.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광주도시재생 국제심포지엄 개최

- 오는 12월 17일 2시부터 광주광역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누구나 참여가능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회장 안길진)는 오는 12월 17일 2시부터 6시까지 광주광역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15 광주도시재생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 도시재생 성공 사례로 본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계획되었으며 국내외 재생 관련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외국 사례에서는 정지영 일본 치바대학 도시환경시스템학과 교수의 '일본의 도심지 주거재생의 새로운 대안'이라는 내용과 김세용 고려대학교 교수(미국 컬럼비아대학 겸임교수)의 '미국의 도시재생전문가 양성시스템', 장수아 프랑스 건축사(계원예술대학교 출생)의 '대규모 문화시설을 통한 도심재생 / 파리 퐁피두 센터와 광주 ACC시설을 중심으로' 내용이 발표된다. 이어 국내 사례에서는 여해진 도시공간 연구소 연구위원의 '건축협정과 도시재생'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진행될 토론회에는 안용훈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국장과 박홍근 포유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이영석 광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남승진 동아인재대학교 건축과 교수, 유병권 건국대학교 겸임교수가 참석하여 열린 토론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도시 재생에 관심 있는 시민을 비롯한 학생이나 전문가 등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히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창업지원 프로젝트

마이다스아이티는 건축 설계자 여러분의 기술력 향상과 성장을 위하여인 개인기업, 신규 창업 기업 및 프로그램 미보유사에 한해 창업지원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주)마이다스아이티 창업지원 담당자
이해린 031. 789. 4268
<http://www.midasarchi.com/startup>

MIDAS
WORLD CLASS 300
World Best Software
The product is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지원 대상

- 최근 2년 이내 창업 및 창업예비 건축사사무소
- 2013년 이후 건축사 면허 취득자

지원 내용

- 총 지원예산 2억원
- 본프로젝트는 지원예산이 소진 되면 자동 마감됩니다.
- MIDAS Space Design Solution 최대 할인 혜택
- 맞춤형 교육 및 기술지원
- 초기 프로젝트 맞춤형 컨설팅

건축설계자 여러분의 창업의 꿈에 지원합니다.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신생건축사사무소,

그 꿈과 희망에 힘이 되고 싶습니다.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12월 주요 일정 안내

법/령/정/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3	13	15	16	17	18	19
			광주건축사회 위원회 위원장 간담회-오전 10시 회관 소회의실	전남건축사회 건축인의 밤-오후 6 시 호텔 현대 목포 전북건축사회 2015 년 송년의 밤-오후 6시 오벨리스 5층		
20	21	22	23	24	25	26
	광주건축사회 제12 회 이사회-오후 4 시 귀항정 전주건축사회 2015년 송년의 밤-오후6시 30분 금양정	광주건축공사 감리협의회 임시총회-오후2시 광주건축사회 5층 대회의실	광주건축사회 제 8회 역사편찬 위원회의 -오전 10시 회관 소회의실		성탄절	
27	28	29	30	31	1/1	2
					신정	
3	4	5	6	7	8	9
	광주건축사회 제 2016년도 사무식-오후 2시 예정 광주건축사회관 5층	전북건축사회 2016년 신년 하례회-오전 11시 회관 회의실				

■ 광주건축사회 동정

- *입회(소재지)**
 - 최정수 건축사 / 정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화운로 114 4층(화정동)
 - 관병구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마실 광주 서구 화운로 114 4층(화정동)
- *전입**
 - 나중섭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F2W 광주 북구 저불로 16
 - 김선수 건축사 / 제이에스건축사사무소 광주 광산구 풍영로47 성산빌딩 304호
- *결혼**
 - 고재량 건축사 / 성하 건축사사무소 장남 결혼 11월 29일(일)
 - 김정철 건축사 / 송강 건축사사무소 장남 결혼 11월 29일(일)
- *부고**
 - 유승희 건축사 / 원 건축사사무소 모친상 10월 31일(토)
 - 이영호 건축사 / 전진 건축사사무소 모친상 11월 12일(목)

■ 전북건축사회 동정

- *입회**
 - 정상민 건축사 / 진 건축사사무소 전북 익산시 선화로 41길 19(남중동, 2층)
- *변경(소재지)**
 - 오한주 건축사 / 가문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산 5길 20-8(중화산동2가)
 - 임귀석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예당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38(효자동2가)
 - 이준수 건축사 / 엔드림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60-2(덕진동2가)
 - 김용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아름다운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책44길 46, 702호(교사동, 기린오피스텔)
- *결혼**
 - 김윤형 건축사 / 디딤 건축사사무소 차남 결혼 - 11월 14일(토) 오전 11시
- *부고**
 - 박광섭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비전 부친상 - 11월 02일(월)
 - 이정호 건축사 / 건인 건축사사무소 빙모상 - 11월 16일(월)
 - 김성규 건축사 / 나무 건축사사무소 모친상 - 11월 25일(수)
- *기타**
 - 이형철 건축사 / 예원 건축사사무소 (사립알중앙회 전북지구 정읍지회 32대 회장 취임 _12월 4일(금))

■ 전남건축사회 동정

- *재입회**
 - 김성을 건축사 / 예인건축사사무소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89(영천리1057-7)
- *변경(소재지)**
 - 오덕영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이오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74 남악도청프라자 713호

■ 광주·전남·전북 12월 지역축제 안내

- ▶ 08. 22 (토) ~ 12. 31 (토) 산속여우빛축제 2015 _ 전북 완주힐초터온 내
- ▶ 12. 11 (금) ~ 01. 24 (일) 보성차밭빛축제 2016 _ 전남 보성군 다향각 및 차밭, 울포해수욕장

※ 건축허가관련 양식 기재란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십시오. 건축사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 고시원, 공동 취사·휴게실 등 편의시설 갖추어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종 근린생활시설인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실별 개별취사 가능여부 등을 정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마련하여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은 저소득층 및 학생의 대체 주거시설로서 그 간 공급이 증가해 전국에 5,746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 기준은 재실자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생활시설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의 공동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건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 시행되면 실내의 복도 최소 폭은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2층 이상의 층에서는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재실자의 안전도 강화되도록 하였다.

또한, 실별 욕조 설치(샤워부스는 가능)는 제한되며, 개별 취사 시설 설치도 금지하여 근린생활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이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적으로 이용될 소지를 없애도록 하였다.

이을러,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시원 범죄도 예방되도록 범죄예방기준(폐쇄회로TV(CCTV) 설치,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등)도 준수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준 마련으로 다중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재실자가 좀 더 쾌적한 거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복도 폭 및 난간 설치 등 일부 기준은 규제가 강화된 점도 있으나 이는 재실자의 거주환경 개선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_ 15.11.3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의 녹지기능을 회복하고 과도한 규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단 용도변경 또는 무허가 건축물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일정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다만,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지역을 너무 좁게 한정할 경우 실질적인 제도 도입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축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되거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학교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를 대상으로 훼손지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효과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11조제1항제5호의2 및 제1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발의) _ 15. 11. 2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단지 내 어린이집의 계약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보육시설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은 물론 해당 단지의 보육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일부 시·도에서는 관리규약 준칙에 임대료나 임대차기간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공동주택단지에서 이를 반드시 따라야할 의무가 없고, 관리규약에서 임대료나 임대차기간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마저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을 무시한 채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민원과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각 공동주택단지에서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되,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 준칙을 준용토록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관리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단서, 제93조제1항제5호 신설).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발의) _ 15. 11. 2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옥체험업은 한옥에 숙박 체험과 그 밖의 전문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한옥 역시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옥체험업의 지정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된 한옥은 현행 「건축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숙박은 물론 결혼식, 돌잔치와 같은 행사도 이뤄지는 등 상업시설과 유사하게 이용되고 있음. 하지만 「건축법」 상에는 한옥체험업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한옥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현상변경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현행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옥체험업시설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인 한옥이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될 경우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도록 하여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28호 신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정명철, 박용득, 전병갑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성연
역대발행인 심상봉, 안길전, 국원식, 김남중
초대편집인 박홍근
편집인 서재형
부편집인 정명환, 백재봉, 양우현
전담기자 광승국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정영범, 박신남, 강필서
편집위원 정관성, 강동영, 김미영, 이광영, 윤미순, 박종호, 박주현, 이종순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주)디자인포우 T.062)385-9395
광고신청 T.062)521-0025



표지설명

“건축과 인간”
건축이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속에 혼을 불어 넣어주는 것 이란 말에 공감하며...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16면 전면광고: 1,000,000원
- 16면 외전면광고: 700,000원
- 하 단 광 고: 350,000원
- 하 단 1/2 광고: 200,000원
- 구독료: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신한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1만원부터
- 후원방식: 신한 131-009-471898(예금주: 광주건축사회)
- 14개 시·도 건축사회 2,800,000원
- 전라남도 건축사회 350,000원
- 전라북도 건축사회 350,000원
- (주)에이엠지그림 건축사사무소 350,000원
- 에코시스 350,000원
- 반석기초이앤씨 350,000원
- 윤준주 법무법인 서석 100,000원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 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임용, 인사 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매달 25일
문 의: 광주건축사회(Tel:062-521-0025)
E-mail: gj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세상사는 느낌



범궁원 대표이사
A-DPM E&C

PALIMPSESTE

2015년 11월 17일 오전 8시 30분.

오늘 아침도 강렬한 햇살에 콧등 한가득 땀방울을 훔치며 출근을 한다.

더운 공기를 가득 품은 엘리베이터 안, 11층까지의 긴 여정이 오늘은 왠지 특별해 보인다.

반팔 티 밖으로 보이는 내 팔들은 지난 시간들의 내 노고를 증명이라도 하듯 흰 살과 검은 살의 경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전 안전화보다 어색해진 낡은 구두는 무엇이 불만인양 꼼지락거리다가도 도착지의 문이 열리자 다시 내 팔들과 함께 씩씩한 모습으로 엘리베이터의 문을 박차고 나선다.

그래도 난 늘 그렇듯 사무실 문 앞에서 그 씩씩함을 자제시키고 살며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조용히 서서, 모니터에 집중되어 있는 직원들의 눈빛이 내게 향하기만을 기다린다. 그러면 불과 몇 초도 지나지 않아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 아침인사를 주고받고, 그런 후에야 나는 내 방 내 자리 바로 뒤에 거치된 커피포트에 커피를 내리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2015년 11월 17일 오후 1시.

북적이는 점심시간을 피해 예약된 식당으로 출발한다. 현장에서의 복귀 후 지인들과의 약속으로 미뤄던, 6개월 우리의 첫 프로젝트 종료 후 갖지 못했던 회식을 이렇게라도 때워야 내 미안함이 그나마 수그러들 것 같기에... 그래서 메뉴도 특별히 그들이 좋아하는 것 위주인 닭갈비, 불낙볶음, 돼지고기 목은지짐 등으로 두 탁자를 푸짐하게 차려 놓았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이 많지 않은 식구들과 웃고 떠들며 맛있는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는 이 한마디로 그들에 대한 감사함과 내가 자리를 비울 동안의 일에 대한 각자의 책임을 부탁한다.

“자, 사무실 가면 한 시간 내로 각자 보고사항 보고하고 모두 정리되면 집에 가자.”

2015년 11월 17일 오후 11시 40분.

약 8개월 만에 다시 하노이 노이 바이(HANOI NOI BAI) 국제공항발-인천(INCHEON)국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4시간 후에 보게 될 한국의 하늘을 그리며 그렇게 나는 잠을 재촉한다.

한국에 도착하면 우선 내 시계의 시침을 2시간 앞당겨야 하고, 공항 사우나에서 두어 시간 자고난 다음, 전화기와 의료보험을 다시 살리고, 서울 강남의 한 레지던스로 가서 체크인을 하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사고, 그간 고장이 났던 몸뚱이도 좀 검진하고, 아직 시집 못간 여자 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기타 불 일들을 보고... 그렇게 바쁜 한 주를 보내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 난 1년에 한번 혹은 두 번의 이 반복되는 일정들이 벌써 여덟 해가 지났음을 새삼 실감한다.

이번엔 이전과 달리 올 해 작은 건설사의 대표가 되어 온 것과 체류기간은 약 3주 이상의 일정으로 왔다는 점 외에는 위 레퍼토리의 불변함을 난 잘 알고 있고, 또다시 되돌아가서도 나의 출근은 항상 똑같은 모습일 것에는 이견이 없다.

처음엔 베트남이 낯설고, 조금 지나면 한국이 낯설고, 조금 더 지나면 모두가 낯설기도 모 아니면 기도 하는데, 언젠가부터인가 이 모호함들이 내가 권태로울 땐 생소해져 이내 새로운 재미로 다가오기도 하고, 내가 불안할 땐 이전에 완성했던 퍼즐의 조각들로 다가와 내 무던한 삶의 이벤트가 된다.

Palimpseste.

쓰였다 지움의 반복됨 속에서도, 그 모호함 속에서도 그렇게 다시 그 흔적들을 찾고, 또 덧쓰고... 그리고 나는 그 속에서 미지의 여백도 찾아내어 이 특별한 한 장의 이야기를 꾸며가고 있다.

한장의 Photo



이경탁 건축사
프라임 건축사사무소



경기전 홍살문

푸른 숲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경기전 홍살문을 드러내게 한다. 소박한 선은 문을 만들고 공간을 이루고 자연을 담는다. 모든 것이 본래 하나였던 것처럼...

한편의 시



태완섭 사무국장
전라북도건축사회

가려움

등어리가 가려울 땐
손이 닿지 않아
애를 태운다

남이 긁어 주는 등짝이
얼마나 시원 하랴만
그래도
내 짧은 손보다 낮고

늘어지면 몸이 굳어
그나마 손닿는 곳이
떨어질까하는 걱정으로
매일 손 늘리는 연습을 하고 산다

늘어지면
서로 등이나 긁어주며
그렇게 살자고
아내에게 되 뇌이며
오늘도
하루가 간다

책 소개



엘론 머스크, 대담한 도전 _ 저자: 카케우치 가즈마사

정근양 건축사

아인 건축사사무소(전주)



미래는 꿈꾸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의 실제 모델이자 2013년 <포춘>지 선정 최고의 CEO, 엘론 머스크의 대담한 도전과 혁신의 이야기. 엘론 머스크가 전기자동차, 우주로켓, 태양에너지 등을 개발하면서 겪는 도전과 실패, 그리고 성공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인구는 언젠가 종말을 맞이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종말을 막기 위한 답을 '인터넷과 우주' 그리고 '청정에너지'에서 찾았다. 이에 NASA의 10분의 1 금액으로 로켓을 쏘아올린 우주벤처기업 '스페이스X', 최고의 디자인과 노트북 배터리를 사용하는 순수 전기차 기업 '테슬라 모터스', 무료로 전기를 제공하는 신개념 충전소 '솔라시티'를 통해 자신의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자세히 보여준다. 시금 1달러를 받던 남아공 이민자 출신에서 이제는 순자산 117억 달러(약 12조4000억 원)를 보유한 거부(巨富),IT를 넘어 전기자동차와 우주산업의 판도를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 혁신의 승부사, 남아공의 책벌레 소년에서 세계최고의 혁신 경영자가 되기까지!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지구의 문제들인 인구의 증가, 환경, 화석에너지의 고갈. 흔히 이런 일들은 나사가 먼 미래의 일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민간인인 그가 바로 엘론 머스크다. 페이팔, 테슬라, 스페이스X의 성공과 실패, 인터넷 사업으로 첫 회사를 시작한 엘론 머스크가 여느 경영자들과 다른 행보를 보인 데는 그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자신이 원하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의 진수를 보여 준다. 머스크는 가능성이란 처음부터 있는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더라는 철학으로 프로젝트를 하나씩 실현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로 자신만의 원대한 비전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 굳건한 의지와 신념, 목표를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력,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공을 돌리며 의지를 북돋는 진정한 리더로서의 모습까지 위기를 극복하는 대담함과 행동력은 함께 사는 모든 우리들에게 수많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신축, 증축과 개축, 보수 작업을 전문으로 만족하실 수 있는 책임시공을 약속드립니다. 지붕 개량 전문업체 공장직영 운영 시공/판매. 슬래브 주택, 옥상지붕 건축, 징크 재재전문(기계 임대) 교회, 절, 전원주택, 가든, 공장, 창고 등 어디나 알맞은 용도에 맞추어 선택! 최고의 자재 와 숙련된 기술력, 최저의 시공비 로 품질보장과 함께 고객님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또한 직접 시공하시는 분들도 모든 자재를 공장도 가격으로 판매하오니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상담해 드립니다. 공장 직영: 초대형 공장에서 직거래하므로 원·부자재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가격이 확실이 저렴합니다. 공장 직거래: 주택 개·보수: 한집, 누수, 방수 보수, 지붕 개량. 건축, 내부인테리어 철 구조물. APT, 주택 리모델링: 배란다 확장, 욕실, 도배, 주방 거실 확장, 정면. 슬래브 주택 공사 전, 공사 후. 제각공사, 징크주택, 주택, 공장 전경. *유사 상호 주의. 지붕 개량 금속칼라강판. 지붕 공사의 대표 주자 대농산업. ☎ 062)373-6548, 6549 374-6585. 본사 및 공장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530번지

광주건축사신탁

『아파트』 담보대출



앞으로의 금융
광주건축사신탁

튼튼한 금융파트너 광주건축사신탁이 되겠습니다.

감정가
최 고 **70%** + 무보증신용대출 **7천만원**

아파트담보대출	구 분	무보증신용대출
광주건축사회 회원 및 세대원	자 격	광주건축사회 회원
감정가 최고 70%	한 도	최고 7천만원
3.20% ~ 3.80%	이 율	5.619% ~ 12%
소득금액 증명서류, 등기부등본	서 류	소득금액 증명서류

♣ 기타담보대출(일반부동산, 상가 포함)

- ☞ **사업장임차자금대출** : 소요자금의 50% 이내
- ☞ **회원권담보대출** : 시가(분양금액)의 70% 이내
- ☞ **경락잔금대출** : 경락대금의 80% 이내
- ☞ **건물신축자금대출** : 소요자금의 70%이내(단, 토지담보조건)
- ☞ **채권담보대출** : 액면가의 90% 이내

- 금리 : 신용등급별 적용

♣ 신용등급별 무보증신용대출 한도

- 1등급 : 7천만원 ~ 8등급 : 1천만원
- 소득금액의 250% 이내(타행 및 보증채무1/2 공제)

담당자 : 김정석부장, 김은숙과장, 김효중주임 ☎ 062) 527 8890~1



건축물 유지보수의 새로운 솔루션
신개념 고품격 출입구 매팅시스템
윌매트

ISO 9001, 벤처기업, 이노비즈 인증 | 대한건축사협회 지정 우수건축자재

2015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대상 수상
2015 대한민국 우수기업대상 수상



윌매트(Wilmat)란? 매립형 신개념 출입구매트로써 외부의 오염물질이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며, 건축물의 특성에 맞게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는 매립형 출입구매트 시스템이다.

[시 공 사 례]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국회의원회관, 서울가정행정부원, 국립생태원, 제주해양과학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세종시 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중부발전 본사 사옥, 부산은행 본점, SK네트웍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DSR프로젝트, 포스코본사, 한림대동탄 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판교테크노밸리(네오위즈, 넥슨, KCC 페인트 사옥 등),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등 전국 초, 중, 고 300여 학교,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등 쇼핑센터



(주) 에코시스 / 윌매트 | 홈페이지 : www.wilmat.kr | Tel : 02-786-7115~6 | Fax : 02-784-2011

건축사와 함께! 신로운 동행!

국민에게 신뢰를! 건축사에게는 희망을!
건축사공제조합이 함께합니다!

www.kira-fc.or.kr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6층
Tel. 02-3473-0900 Fax. 02-3473-0921

